



3면

이제명 "호우 피해 현실적 보상 지원 노력"

전주매일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음 6월 2일)

제330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별 2길 6번지



1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김만기 전북도의회 부의장과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새만금 세계짬버리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열렸다

'친절·안전 짬버리' 다짐 결의

새만금짬버리 자원봉사자 발대식

200여 봉사자들, 대원들의 영외과정 활동 조력자로
김관영 도지사 "전북 대표 민간 외교관 역할해달라"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짬버리 지역 연계 프로그램과 도내 시·군 곳곳에서 활약할 자원봉사자들이 발대식을 갖고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는 1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김만기 전북도의회 부의장과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짬버리 대원들의 영외과정 활동 조력자로 나설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리가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또 시군을 대표하는 자원봉사자 위촉장 수여,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자원봉사 퍼포먼스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자원봉사자 모두는 전북을 대표하는 민간외교관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이번 짬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세계 청소년들이 우리 전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밝은 미소와 친절로 품격있는 지역연계 프로그램

현장 곳곳에서 활약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영호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친절한 짬버리, 즐거운 짬버리, 안전한 짬버리라는 다짐을 통해 세계 청소년에게 감동을 주는 성공적인 짬버리가 되도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도내 14개 시·군과의 연계 프로그램은 △익산 왕궁리유적, 고창읍성, 국립립추바물관 등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유산을 견학하는 프로그램, △순창 강천산 진안 마이산 부안 변산 마실길 등 트레킹 활동 프로그램,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완주 대승한지마을, 무주 태권도원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자원봉사자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짬버리 자원봉사단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최정

에 자원봉사자 1,300여명으로 선발됐다.
자원봉사자들은 오는 8월 2일부터 10일까지 14개 시군 지역 연계프로그램 활동장(27개) 등에 배치돼 운영본부, 체험 프로그램 지원, 안전승차지원, 통역지원 등 각 분야에서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
또한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은 현장 투입 전 기본 소양교육과 조직위 지역 연계 프로그램에서 직무교육, 현장교육도 이수한다.
도·시군 자원봉사센터는 해당 지역 프로그램 활동장에 배치된 자원봉사자가 적재적소에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도록 각 활동장에 센터 관리자를 투입해 적극 지원하고,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해 짬버리 성공개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새만금짬버리 캠프 명칭 확정

서브 캠프, 올림피아·시드니 등 역대 개최지
허브 캠프에 백제 등 한국 고대국가 명칭 부여

숙명은 대원 2인이 1개 텐트를 자급받아 직접 설치하고 야영 생활을 한다. 2,000여명의 참가자로 구성된 17개 서브캠프의 명칭은 역대 짬버리 개최지에서 이름을 따 올림피아, 에르멜론, 에로우파크, 과릴리, 보켈렌자, 모아촌, 니아카라, 서튼콜드필드, MT, 마킬린, 마라톤, 패러저트, 아사기리,

텔레함메르, 카나나스키스, 시드니, MT, 설악, 드론펜으로 정했다.
서브캠프의 상위개념으로서 4~5개의 서브캠프로 구성된 5개의 허브는 우리나라 고대국가의 이름을 따서 고구려허브, 백제허브, 신라허브, 고려허브, 조선허브로 정했다.
아울러 백제허브 '금동대향로' 등

각 허브별 대표유물을 표현한 상징이미지 현수막을 허브 운영본부 중형텐트 지붕 전체에 설치해 참가자들이 허브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쉽게 이해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150여 개국의 회원국별 유닛을 각 서브캠프에 배치해 우정 교류, 야영 생활 등을 통해 세계 청소년들이 국제교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획했다.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은 "이번 행사가 참가자 모두가 함께 마음껏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청소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을 추구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바른마음·바른생각·바른행동에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초대합니다.

구 분	모집인원	자 격 조 건
취재기자(본사)	0명	일간지 근무 경력자 우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지역취재기자(원주)	"	"

- ▶ 접수기간: 2023년 7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수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 (본사총무팀)

전주매일

韓총리, 익산 호우피해 농가 방문

용안면 소재 비닐하우스서 피해 상황 직접 살펴
김관영 도지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직접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익산시 용안면 소재 비닐하우스 피해 농가를 찾아 피해상황을 살펴 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익산지역 농경지 침수 현황 등 피해와 복구상황을 보고 받은 뒤 "농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현장을 동행한 김관영 전북도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익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과 용동·용안면 지역의 노후 배수펌프 교체 및 배수개선 사업 우선 추진, 하우스 피해복구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편 전북지역은 14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로 군산 491mm, 익산 346mm 등 도내 평균 337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 12개 시·군에서 농작물 1만 5,931ha, 축사 9ha가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재훈 기자

군산 서수 농공단지 에너지관리 기술도입모델 공모 선정

전북도가 농공단지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2회 연속으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18일 농식품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농공단지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도입모델 공모 사업에 지난 4월 김제 서흥 농공단지가 1차로 선정된 데 이어 군산 서수 농공단지가 2차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수 농공단지에는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농공단지로서 식료품 분야에 전기 및 가스(LNG)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특성이 있다. 이에 도는 이번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에너지사용량 864tce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1,802tCO2 절감 등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해 농공단지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올바른 길로 재탐색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 조작된 정보로 길을 잃었다면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에서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겠습니다.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은
02-2001-7205~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